

전남교육청 학교 부적응 학생 학업 중단 예방 총력

집중지원학교 52개교
 대안교실 24개교 지정 운영
 기초학력 증진·체험활동
 위기학생 학교적응력 높여
 여수서 담당교사 성과공유회

전남교육청이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와 대안교실을 운영하며 학교 부적응학생과 위기학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역 고등학교 52개교를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로 선정했으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대안교실 24개교(초·중·고)를 택해 운영했다.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는 대안교실·심리치료·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를 동안 여수에서 2021학년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와 대안교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학교 내 대안교실은 별도의 학급 운영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며, 전일제와 반일제, 요일선택제, 기수제 등으로 운영했다.

도 교육청은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와 대안교실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동아리

컨설팅을 연중 진행,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이를 동안 여수에서 2021학년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와 대안교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공유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대안교실 꿈지락프로그램 집필자들의 강의 시간도 마련했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집중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학업중단속려제, 위탁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최대한 예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2022년도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50개 고등학교 내외)를 운영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20개교 내외)을 업무DB를 통해 12월 중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동문들 연구성과 공유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과장 유종원) 창설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가 최근 성황리에 개최됐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반세기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해외 대학, 국내 대학, 산업 현장 등에서 종사하면서 누려온 학과 출신 동문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와 고민들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따라 화상회의(Zoo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동문 연구자들을 비롯해 대학원 재학생, 현직 및 퇴직 교수 등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성은 교수(미국 인디애나대학 재직, 93학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전략 커뮤니케이션 연구’, 김구용 교수(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케니디대학 재직, 96학번)는 ‘BTS로 대변되는 K-POP의 열광 그 이면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권신오 박사(86학번)는 ‘언론 현장에서 대학을 보다’라는 발표를 통해 신문방송학과와 산학협력 및 취업 대책을 논했다.

‘캠퍼스에서 현장으로: 우리의 도전, 열정, 회고’라는 이름으로 가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참석자들이 대학생활을 되새기면서, 후배들을 격려했다. 또 학과의 동문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는 학술공동체를 결성해 주기적인 연구 발표와 교류의 장을 갖기로 했다.

유종원 학과장은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수학한 언론학 박사가 26명, 박사수료생도 16명에 이를 만큼 학과가 학문적 성장을 해왔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문들이 학과 재학생들에게 동기와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미택’ 신생아 질식사 위험 감지 스마트 모빌 개발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신생아 육아와 집안일에 시달리는 주부들이 산책이나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모빌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 입주기업인 ‘미택’의 문진영 대표는 육아의 경험을 살려 스마트 모빌을 개발했다. 문 대표가 개발한 모빌은 AI기술로 영상촬영이 가능한 모빌이다.

주부들은 모빌을 통해 외부에서도 영유아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제품을 제작하고 AI모빌 특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진영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영유아 시기에 질식사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실제 미국에서 영유아 돌연사가 매년 1만 건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며 “육아를 해보니 안전한 육아용품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BI센터는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보육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해 기술 분야를 비롯해 투자,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SW사업단 나주금천중 SW-AI 동아리교육 호남권 최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최근 ‘2021년 나주금천중학교 창의융합 SW-AI 동아리교육’을 진행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 반드시 요구되는 AI-SW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SW중심대학사업단의 전문들이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광주대 AI자동차학과 ‘슬기로운 대학생’ 성료 예비 신입생 학과 소개·투어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AI자동차학과는 최근 학교 탐진관 및 실습실 등지에서 슬기로운 대학생 프로그램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AI자동차학과 소개, 교육환경·실습실 투어, 교수·선배들과의 만남 등의 내용으로 펼쳐졌다. 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융합 전공과 관련된 학업 방향, 진로 등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열렸다.

광주대 AI자동차학과는 공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해 LINC+ 사회맞춤형학과(전자자동차부품 개발트랙),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의 각종 국책 사업 수행하며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인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장학금 혜택과 맞춤형 교육환경, 최고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재학생과 예비 신입생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3명 초록우산 연구지원사업 선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복지학과는 박수민·김지현·김지현·정은별(4년) 학생이 올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공모한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구지원사업’에 최종 선정, 최근 진행된 논문발표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연구주제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혼합연구방법을 활용)’으로 다문화 청소년 8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연구 방법과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질적 연구방법 등을 적용한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